

가족과 떠나자, 지상낙원으로

강원도 정선 하이원리조트(대표 이상걸)는 워터파크부터 웰니스 프로그램, 트레킹, 미식, 그리고 아웃도어 액티비티까지 다양한 즐길거리를 갖춘 가족여행지다. 요즘 하이원 리조트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손님맞이에 분주하다.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을 맞아 많은 여행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돼 청정자연에 위치한 특성을 살려 에코투어부터 고즈넉한 한옥 전통술 체험까지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보강하고 있다.

야생화 수놓은 '하늘길 카트투어' 힐링 해발 1340m 도롱이 연못 하이킹 명소 전통 한옥공간 운암작가서 전통주 체험 국내 최초 마을호텔 골목길 재미 쏠쏠 병방치 스카이워크 구름위 걷는듯 짜릿

●신비로운 숲속 오솔길과 도롱이연못

겨울 스키리조트로 유명한 하이원의 슬로프들은 여름철에는 각종 야생화를 감상하는 '하늘길 카트투어' 코스로 변신한다. 하이원은 2006년 스키장 오픈 이후 매년 야생화를 심으며 슬로프 녹화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지금은 사스타데이지, 원주리, 묵수국, 꽃양귀비 등 112종의 다양한 야생화가 계절에 맞춰 꽃을 피운다.

'하늘길 카트투어'는 이용객이 골프카트를 운전해 60분 간 야생화 군락지를 돌아보는 프로그램이다. 마운틴 베이스에서 출발해 슬로워 가든, 밸리 허브를 지나 다시 마운틴 베이스로 돌아오는 왕복 7km 코스다. 느릿하게 움직이는 카트를 타고 가다 보면 겨울철 하얀 눈에 덮여있던 슬로프가 푸른 녹음과 다양한 꽃으로 덮여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해발 1340m 하이원탑의 전망 레스토랑 뒤로 돌아가면 '도롱이 연못'이라는 화살표와 함께 숲으로 이어지는 신비로운 느낌의 오솔길이 나타난다. 하늘길 트레킹 코스 중 하나인 고원숲길의 일부이다. 난이도가 평이하고 시간도 30~40분 정도여서 가벼운 숲속 하이킹 체험을 하기에 좋다. 고요한 숲길을 걷다가 보면 산속에서 차분하게 자리잡은 작은 연못이 나온다. 천연기념물 도롱이가 서식한다는 도롱이 연못이다.

●분위기 취하는 운암작가와 정감 어린 마을호텔

운암정은 하이원 그랜드호텔 옆에 있는 전통 한옥공간이다. 지난해 12월부터 한옥 베이커리 카페로 운영하고 있는데, 하이원은 이곳에 최근 전통주 주점 '운암작가'를 추가로 오픈했다. '잔에 술을 따르고 부어 마시는 집'이라는 뜻을 가진 운암작가(酌家)는 전통주의 역사와 이야기를 함께 즐기는 스토리텔링을 내세우고 있다. 탁주, 청주 등 37종의 전통주와 지역토속음식이 포함된 다양한 안주가 있다. 건물 자체가 주는 정취가 남다르고 술과 안주를 갖춘 '주안상' 구성이 이색적이고 다양하다.

하이원리조트 행정동 옆에 있는 고한 18번가 마을호텔은 폐광촌의 빈집과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해 조성된 국내 최초의 마을호텔이다. 18번가 골목길을 따라 주민들이 운영하는 식당과 카페, 사진관, 이발관, 세탁소, 숙박시설이 모여 있다. 폐광촌의 역사와 여행객의



▲사스타데이지를 비롯한 야생화가 가득 핀 슬로프에서 사진촬영 중인 방문객들.

▶병방치 스카이워크에서 내려다본 한반도를 덮은 밤삼과 이를 휘감아 도는 동강. 583m 높이의 아찔한 절벽 위에 만든 투명 유리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는 풍광이 압도적이다.

▶하이원리조트가 561억원을 투자해 내년 개장을 목표로 준비중인 탄광문화공원의 경도 체험, 옛 동원탄파의 탄광과 시설을 활용해 지역 현대사를 담은 산업관광 랜드마크로 개발하고 있다.

정선 | 김재범 기자

아련한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골목길의 정감을 간직하고 있다.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골목 구석구석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탄광문화관광공원은 하이원리조트의 사북 입구 쪽 동원탄파 시설을 활용한 산업관광 콘텐츠다. 총 561억 원을 들여 석탄산업 등으로 대표되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가미한 관광 랜드마크를 표방한다. 당초 올해 10월에 문을 열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내년으로 개장이 연기되면서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병방치 스카이워크는 하이원서 차로 30분 정도 떨어진 정선을 북설리에 있다. 해발 583m 절벽에 11m 길이로 돌출된 투명유리 전망대를 만들었다. 절벽 아래가 훤히 보이는 유리바닥이어서 마치 허공을 걷는 것 같은 오묘 저린 스티플감이 있다. 하지만 전망대 아래로 한반도 모양의 밤삼과 이를 감싸 흐르는 동강이 어우러진 모습을 마주하면 무서움은 사라지고 가슴 탁 트이는 비경이 주는 상쾌함만 남는다.

정선 |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여행

스포츠동아 2022년 6월 24일 금요일 15



7월25일부터 야외 파도풀에서 진행되는 메가 플라이보드쇼. 사진제공 |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DJ풀파티부터 플라이보드쇼까지 '메가 웨이브 페스티벌' 오늘 개막

캐리비안베이, 여름축제 3년 만에 개최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이 운영하는 에버랜드의 워터파크 캐리비안 베이는 24일부터 8월15일까지 여름축제 '메가 웨이브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열리는 행사다.

축제 메인 프로그램으로 야외 파도풀에서 '메가 DJ 풀파티'를 7월8일부터 8월14일까지 매일 저녁 진행한다. 이를 위해 거대한 자이언트 크라켄 특설무대를 야외 파도풀에 만들었다. 7월9일부터 매주 토요일에는 박명수, 구준엽(DJ KOO), 준코코(JUNCOCO) 등 스페셜 DJ가 릴레이로 출연하는 '슈퍼 스테이지'를 진행한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기 좋은 콘텐츠도 다양하게 구성했다. '메가 플라이보드쇼'를 야외 파도풀에서 7월25일부터 진행한다. 전문 연기자까지 펼치는 서커스 공연과 시원한 여름 노래를 들려주는 버스킹 공연도 있다. 폭립, 소시지, 학선 등 바비큐 메뉴와 시원한 맥주 등을 즐길 수 있는 '메가 바비큐 & 비어 페스티벌'도 7월 중순부터 실시한다.

축제 시작과 함께 이국적인 할링 포토스팟을 야외 파도풀을 중심으로 캐리비안 베이 곳곳에 조성한다. 24일부터 야외 파도풀에는 해외 휴양지의 바닷가를 연상시키는 다양한 포토스팟들이 등장한다. 와일드드림풀은 스튜디오 풀 콘셉트의 포토존으로 변신한다. 야외 유수풀에는 여름 대표꽃인 수국이 150m 길이로 이어지는 '수국 로드'를 조성했다.

김재범 기자

대규모 의료·웰니스 관광객 줄줄이 방문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의료 및 웰니스 단체 관광객이 방문한다. 22일부터 9월까지 6편의 전세기로 입국하는 몽골과 카자흐스탄 관광객이다. 전체 인원 규모가 약 800명에 이른다. 개별방문 위주인 의료·웰니스 관광객이 단체로 전세기를 통해 방문하는 점이 특징이다. 22일 제주공항으로 입국한 150여 명의 몽골관광객은 4*5일간 중앙병원, 위(WE)병원, 제주한라병원, 제주한국병원 등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웰니스 관광지를 포함한 제주 명소를 돌아본다. 몽골 단체는 7월 2편과 8월, 9월에 각 1편씩 제주도로 입국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카자흐스탄에서 7월 인천공항으로 100여 명의 단체 관광객도 입국한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topspe@donga.com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6월 24일 (금) 음력: 5월 26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웬지 마음이 쓸쓸한 날이다. 현실을 탈피하고 싶은 심정이 안정을 갖지 못하는 때이다. 하는 일이 순조롭지 못하는 데서 갈등이 기인되며 모함이나 질투로 인하여 고민되는 상태에 놓인다. 반성과 상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현실을 수용할 수 있는 금전적, 정신적 측면이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시기이므로 안정을 갖고 대처할 수 있는 심리적인 자세가 요망 된다. 꿈과 이상이 현실화되기에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한 번 더 생각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성급함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면서 주위의 자문이나 조언을 귀담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가능한 한 타인의 일에는 간섭이나 개입을 않는 편이 좋으며, 건강에 많은 신경을 기울여 안정을 도모하기 바란다. 움직이는 날이다.	냉정 상태를 심각하게 몰고 가면 현 위치에서의 이탈, 또는 다른 파격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으니 마음을 어떻게 결정하는가가 중요하다. 모든 생각과 행동은 자신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점 명심하기 바란다. 돼지피와의 거래에서 신중해야 한다.	계획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되며 직업이나 학업을 통해 보다 확고한 자신의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시기이다. 매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을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사들였던 화초가 비를 만나서 적이다.	직업상의 변동과 문서와 연관된 일에서 이득을 찾으려 하는 때이므로 일관된 목표의식을 갖되 주위를 포용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크게 이득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현상유지만 도모할 뿐이다. 자칫 일이 커지 수 있으니 서두르지 마라.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흰색 길방: 서
결단을 잘못 내리거나 실패하기 쉬우니 다시 숙고하라. 이성과 함께 하는 사업은 불리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오해를 살 수도 있었다.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맞지 않아 고민하겠으나 참고 견디면 나아지겠다. 의외의 횡재수를 가져온다.	이일 제일 손대지 말고 안정된 직업이나 직장에서 꾸준히 노력하라.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은 힘들겠으나 작은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좋은 운이다. 이동은 금물이며 이사로 뒤로 미루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혼자서 일처리를 하지 말라.	결단력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대로 결행함이 필요한 때다. 명예가 따르고 금전적인 여건도 아울러 발전하니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밀고 나가는 행동력이 뜻을 실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친구들과 어울려 남비할 수 있는 날이다. 자제하라.	귀인의 도움으로 명예와 재물이 따르며 문서적인 문제도 자신의 소신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성간에도 지금까지의 지연상태가 급변하여 좋은 인연을 맺게 될 것이다. 정신이 혼미하여 실수할 수 있다. 하지만 실속은 있는 날이다.	과욕을 부리지 않는 상태라 하더라도 문서 및 서류로 인한 주위의 반목과 질시의 분위기가 초래되며, 정신적 불안감 또한 조성되므로 명예나 이익의 추구보다는 이전의 안정 상태를 유지하도록 힘써라. 새로운 환경에 들뜨기 쉬운 날이다.	강인한 정신력으로 돌진할 수 있는 힘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 주위의 인정이나 판단을 의식하여 자신의 주관을 잃으면 고통을 맛보기 쉽다. 과감성을 갖고 행동에 임하면 명예는 한층 더 돋보일 수 있다. 부동산 구입시 신중하라.

오늘의 날씨			24일(금)		
서울 60/20	인천 60/10	춘천 60/30	21 28	19 25	21 29
강릉 60/0	대전 70/20	전주 100/30	25 33	23 29	23 30
광주 90/30	대구 100/20	부산 90/60	23 28	24 32	22 25
창원 90/60	제주 60/70	지역	23 27	25 28	강수 확률 (오전/오후) 최저 최고기온 C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852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임총괄 김성수 광고국장 이승욱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모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본·투고 02-361-1616 sol@donga.com